### [최종] 합류한 건 교육 혁신에 대한 꿈 때문이에요

“스타크라는 이름은 아이언맨의 극 중 본명인 토니 스타크에서 따왔어요. 아이언맨은 제가 동경하는 인물이에요. 극 설정상 돈도 많고 명성도 있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데도 세상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쓰고 트라우마에 걸려가면서도 미치도록 자신의 꿈을 좇는 데 몰입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안위만 해결하면 그만인데, 욕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꿈꾸는 게 멋있어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진 교육기획 업무 및 Developer Relations 업무를 담당했는데, 팀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42서울 개선을 중심으로 필요한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을 개선하는 것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엔 크래프톤에서 일했어요. 입사했을 때는 블루홀이라는 이름이었죠. 당시 배틀그라운드가 인기를 얻은 바로 직후여서, 사무실 자체는 허름했어요. 그다음 해 여름엔 판교역 바로 앞에 크래프톤 타워로 멋있게 이사했는데, 제가 본 사무공간 중 그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좌석 앞에 레일이 설치돼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모니터 암을 끼울 수 있고, 책상도 모두 전동책상이어서 높이를 조절해 서서 일할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허먼밀러 의자가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크래프톤의 급여가 게임업계에서는 상위권이었지만, 소프트웨어 회사 전체로 따졌을 때 최상위권은 아니었어요.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연봉이 많이 올랐더라구요. 그래서인지 그 당시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 사이에서는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돌고, 이직했던 분들은 많이 배 아파하더라구요(하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합류한 건 교육 혁신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꿈 때문이에요. 면접까지 합격한 후에 최종 합류가 고민돼서, 학장님을 따로 뵙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학장님이 하신 이야기 중 하나가 제가 꿈꿨던 것과 일치해서 생각한다고 합류를 결정했어요. 바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하는 시도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교육 혁신에 머물지 않고, 다른 도메인의 교육 혁신으로 확산했으면 하는 점이었죠. 여기서 하는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변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는 주로 성인 교육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그 시도가 점점 학령기 교육으로 퍼져나갔으면 하는 거죠.”

“과거엔 지식이 책과 교사의 머릿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인터넷에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과거와 동일하게 교육하는 건 이상하다고 봐요. 여러 생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원이라는 공직은 인적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원의 교과과정 교수 기능이 약화되고 진로나 코칭 등의 영역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어교(어쩌다 교사)’가 탄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 중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교사가 되는 구조죠. 현재는 신입과 경력 모두 일종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어교’를 구조적으로 막는 듯해요. 신입과 경력이 합류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코딩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구체적인 고민의 결과이기보다는 자유로운 상상이에요! 지금의 공무원 시험은 5~10년 공부해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코딩이 들어간다면, 합격하지 못해도 개발자로 일할 수 있죠. 물론 단순 필기시험이어서는 안되고, 개발 능력을 측정할 방식을 따져보긴 해야겠지만요. 합격자를 생각하더라도, 공무원이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개발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시험만 바꾼다면 노량진에서 알아서 코딩을 가르칠 거고, 개발자 공급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커지겠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지만, 변화 이전과 이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후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진다면, 한계가 있더라도 바꾸는 게 좋다고 믿어요.”

“42서울은 흔치 않은 교육방식을 택하는 대안학교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곳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했으면 좋겠고, 컴퍼니 인 컴퍼니 형식으로 스타트업도 생기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일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학생들끼리 완결된 형태로 움직였으면 해요. 자경단이 생겨서 어뷰징하는 사람 잡아내고, 42 재판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재판하고(하하). 또 카뎃들이 우리의 동료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규정하고요. 실제로 미국의 올린 공과대학교가 학생들이 졸업생의 자격을 정해요. 42가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화되는 점은 하나의 사회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카뎃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사회로 나갈 시기를 미루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소평가하지 말고 가고 싶은 회사에 과감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채용 기회에 지원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이지만, 지원하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고 믿거든요. 물론, 지원하려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도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그게 과감한 지원의 장점이라고도 생각해요. 스스로 부족한 걸 보완해서 채워나가게 하거든요.”

“42서울 학생들 너무나도 훌륭하고 외부에서도 좋게 보고 있어요.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와 비교해보더라도, 실제로 개발자로서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개발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컴퓨터공학과에선 적지만, 여기선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준비돼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기보단, 이 고민을 서류 평가하는 사람과 면접자들에 넘겨보세요. 떨어지면 ‘아 그 회사랑 안 맞나보다'하고 성장하고 보완해 도전하면 되죠. 취업도 애자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 

### 

### [초안] 합류한 건 교육 혁신에 대한 꿈 때문이에요

“스타크라는 이름은 아이언맨의 극 중 본명인 토니 스타크에서 따왔어요. 아이언맨은 제가 동경하는 인물이에요. 극 설정상 돈도 많고 명성도 있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데도 세상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털고 트라우마에 걸려가면서도 미치도록 자신의 꿈을 좇는 데 몰입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안위만 해결하면 그만인데, 욕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꿈꾸는 게 멋있어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진 교육기획 업무 및 Developer Relations 업무를 담당했는데, 팀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42서울 개선을 중심으로 필요한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학습경험 개선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엔 크래프톤에서 일했어요. 입사했을 때는 블루홀이라는 이름이었죠. 당시 배틀그라운드가 인기를 얻은 바로 직후여서, 사무실 자체는 허름했어요. 그다음 해 여름엔 판교역 바로 앞에 크래프톤 타워로 멋있게 이사했는데, 제가 본 사무공간 중 그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좌석 앞에 레일이 설치돼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모니터 암을 끼울 수 있고, 책상도 모두 전동책상이어서 높이를 조절해 서서 일할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허먼 밀런 의자가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크래프톤의 급여가 게임업계에서는 상위권이었지만, 소프트웨어 회사 전체로 따졌을 때 최상위권은 아니었어요.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연봉이 많이 올랐더라구요. 그래서인지 그 당시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 사이에서는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돌고, 이직 했던 분들은 많이 배 아파하더라구요(하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합류한 건 교육 혁신에 대한 꿈 때문이에요. 면접까지 합격한 후에 최종 합류가 고민돼서, 학장님에게 따로 연락 후에 뵙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학장님이 하신 이야기 중 하나가 제가 꿈꿨던 것과 일치해서 합류를 결정했어요. 바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하는 시도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교육 혁신에 머물지 않고, 다른 도메인의 교육 혁신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점이었죠. 여기서 하는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변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는 주로 성인 교육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그 시도가 점점 초중등교육으로 퍼져나갔으면 하는 거죠.”

“과거엔 지식이 책과 교사의 머릿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인터넷에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과거와 동일하게 교육하는 건 이상하다고 봐요. 여러 생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원이라는 공직은 인적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교원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 사대에 입학하고, 다시 열심히 임용고시 준비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생 대부분의 과정에서 공부와 시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온 분들이죠. 그렇지만 학생들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교원의 교과과정 교수 기능이 약화되고 진로나 코칭 등의 영역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어교(어쩌다 교사)’가 탄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 중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교사가 되는 구조죠. 현재는 신입과 경력 모두 일종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어교’를 구조적으로 막는 듯해요. 신입과 경력이 합류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생각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코딩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구체적인 고민의 결과이기보다는 자유로운 상상이에요! 지금의 공무원 시험은 5~10년 공부해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코딩이 들어간다면, 합격하지 못해도 개발자로 일할 수 있죠. 물론 단순 필기시험이어서는 안되고, 개발 능력을 측정할 방식을 따져보긴 해야겠지만요. 합격자를 생각하더라도, 공무원이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개발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시험만 바꾼다면 노량진에서 알아서 코딩을 가르칠 거고, 개발자 공급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커지겠죠? 합격을 위한 코딩 공부도 나름의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변화 이전과 이후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후의 상황이 그 이전보다 나아진다면, 한계가 있더라도 무조건 바꿔야한다고 믿어요.”

“42서울은 흔치 않은 교육방식을 택하는 대안학교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곳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했으면 좋겠고, 컴퍼니 인 컴퍼니 형식으로 스타트업도 생기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일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학생들끼리 완결된 형태로 움직였으면 해요. 자경단이 생겨서 어뷰징하는 사람 잡아내고, 42 재판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재판하고(하하). 또 카뎃들이 우리의 동료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규정하고요. 실제로 미국의 올린 공과대학교가 학생들이 졸업생의 자격을 정해요. 42가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화되는 점은 하나의 사회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카뎃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사회로 나갈 시기를 미루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소평가하지 말고 가고 싶은 회사에 과감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채용 기회에 지원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이지만, 지원하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고 믿거든요. 물론, 지원하려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도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그게 과감한 지원의 장점이라고도 생각해요. 스스로 부족한 걸 보완해서 채워나가게 하거든요.”

“42서울 학생들 너무나도 훌륭하고 외부에서도 좋게 보고 있어요.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와 비교해보더라도, 실제로 개발자로서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개발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컴퓨터공학과에선 적지만, 여기선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준비돼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기보단, 이 고민을 서류 평가하는 사람과 면접자들에 넘겨보세요. 떨어지면 ‘아 그 회사랑 안 맞나보다'하고 성장하고 보완해 도전하면 되죠. 취업도 애자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 [녹취]

올해 들어 교육기획팀의 방향이 바뀌어서 약간 과도기적이고. 이제 3월 쯤은 과도기가 있었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몇가지 업무를 기획하고 있어요. (교육기획팀의 역할) 재단 내부의 기획팀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저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 하는 일을 말씀 드리면 재단의 중장기 계획을 짜거나 42 서울을 어던 식으로 끌어가야할지에 대한 큰 계획. 당장의 걔획은 운영팀에서 하고 큰 계획은 기획팀에서 하고요, 재단이 42서울 말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혁신을 해야할지 이런 것들을 … 사업관리,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과기부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아님도 기획팀. 작년까지만 해도 올리비아님과 제가 열심히 활동했잖아요, 약간 백오피? 성으로 빠졌다고 보면 돼요.

(기업협력은?) 대외협력에서 하기로 했어요. 거기도 요즘 인원이 세팅이 안돼서 거의 스탑형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진행되던 거 빼고 새로 진행되는 건 안되고 있잔하요. 저희도 학생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재단의 전체적인 운영방향이 변화를 해서 약간 두고보자에요(하하). 잘 안될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착오를 인정하겠지(하하).

(42외에도?) 새로 개발하고 있는 교육시스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푸는 역할도 할 것 같고. 빠르면 올해 말에 테스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이면 윤곽이 많이 들어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 대상?) 처음 기획할 때만 참여하고 지금은 참여하질 않아서 얼마나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레도 에콜42는 오프라인 교육이잖아요. 그건 만들어질 때 정체성이라 아무리 과카몰리 하든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취하는 구성주의 교육학이라는 게 오프라인 인터렉션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교육학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 구성주의 교육학이잖아요. 인지주의에서 가르치고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온라인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슽템을 만들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고, 원래 재단을 만들 때부터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지금은 약간 억지로 하는데 새로 만든 시스템에선 온라인에서 하는 게 자연스러운거죠. 온라인에서 코드리뷰하고, 과제 수행하고 모든게 이뤄지는. 역량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추천으로 매칭되고. 지금은 강제로 매칭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추천 매칭이 되고, 이 사람의 커리어 패스를 플랫폼이 관리해주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은 어디 분석 어디 jd(job description)에 적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했떤 것중 하나가 SW 분야 역량모델 개발이란 것도 했는데, 그런것들? 이제 지원하죠. (그래서 멘토님도 LMS개발 필요한 분을 찾는 군요.)

6’12 지금은 42 서울 시스템은 약간 구식이잖아요. 이것도 10몇년 됐으니까.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얘전에 학장님이 얘기했떤 걸로는 거제도에 있는 애도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도 코딩 공부하고 개발자 되고 싶은 사람도 언제 어디서나 개발자 공부할 수 있는. 42는 전일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학장님이 얘기하는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블라블라 그런 모토를 이루는 시스템이죠. 에콜42는 계속 가고 별도로. (투트랙 느낌으로) 42는 전일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어나더 트랙은 내가 일이 있어서 개발자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이나 지역적으로 멀리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개발자 수요도 많고 되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 작업은 멘토단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진행하고 있어요. 멘토님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있고 외주개발하는 것도 있고 멘토님끼리 만들 것 같아요.

(왜 스타크?) 아이언맨이 좋아서. 하하. 아이언맨이 멋있는 것 가아서. 아이언맨은 극 설정상 극적 인물이니까. 돈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잖아요, 여자 많고 돈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아버지 명성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럼에도 세상을 지키는 것에 대해 몰두하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털어가면서. 트라우마도 걸리기도 하고 힘들어 하면서 미치도록 몰입하는 게 멋있었어요. 자기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걸 꿈꾸는?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꿈꾸는? 아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 고민을 하는. 롤모델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사람. 멋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안위만 해결되면 머무는 사람도 많은데 스타크는 욕을 먹으면서도 끊임 없이 뭔가 하잖아요. 롤모델은 아니고, 그냥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리스펙트 동경하는. 일종의 연예인의 삶인데 쉽지 않죠. 사생활도 없고. 맨날 시간도 없이 수트 만드는데 몰두하잖아요. 그러다 울트론 만들고. 그러다 나중에.. 다보셨죠? 마지막엔 딸하고 있으려했는데 인성 아메리카노가.

(스타크님이 맡으신 업무?) 과도기적이라 명확하진 않은데 중장기보다는 42서울에 관련된 것. 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얘를 들어 지원금 지급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지금은 학습레포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학습자들에게도 안좋고 관리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1기 멤버들이 점점 현장으로 많이 가잖아요,. 42 입장의 알럼나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런 걔획을 세우고. 좀 고민하려는 게 개포동에 다니느 ㄴ교육생 분들이 어떻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주차비도 할인 도입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차비를 교육새이면 20% 할인해준다, 이정도만 받아도 좋잖아요. 할인만 받아도 클러스터 오는 게 부담이 없어지고 출석을 높이고 동료학습을 활성화하는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죠.

(봤을 떄 개선이 필욯나 사항) 주차비 비싸고 들었고, 또 뭐냐 개포시장하고 싸워서 푸드트럭을 도입하거나 그런걸 고민하려고요. 레스토랑을 만들거나. 싸워야죠. 그런것들. 시장에서 벗어날 숭 ㅣㅆ는. 시장이 너무 구려서. 먹을 게 넘 없어서. 여러가지 협의가 필요하죠. 서울시와 얘기도 나눠야 하고. (전에 했떤 일과 많이 달라지신 거네요.) 전에 했떤 일은 기업협력 프로젝트나 교육생 성장과 관련된 세미나였는데, 성장 관련된 것도 고민하긴 해요. 결국은 42서울 운영개선도 그냐 운영을 개선하는 겡 ㅏ니라 교육생이 성장하는 게 목표에요. 성장하려면 오프랑니에서 ㅁ낳이 만나야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나려면 음식을 먹을데가 있어야 하고 주차비가 저렴해얗 ㅏ고 이런식으로 연결되죠.

지원금 지급 개선은 코알리시옹 포인트를 환영한다든가. 이런. 절대 점수를 둬서 이상이면 지원금 받고, 아니면 못받고. 지금은 평가 가뭄이잖아요. 맨날 평가 없어서 슬랙에 올릴 정도니까. 그러면 하겠조 사람들이. 그럼 사람ㄷ르이 점수를 채우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 양적으로 늘리려는 노력이 지원금 지급개선이면, 질적으로 늘리려는 노력, 평가문화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동시에 진행해야.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질적인 부분은?) 교육생들끼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랑 얘기도 나눠보고. 이따가도 얘기드리겠지만 저는 42서울이 자체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자체 완결된 형태로 움직였으면 좋겠느넫. 교육생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합류하는 형식으로 해볼까 생각중이에요. 제가 주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면 거기 합류해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42서울에 대한 모습에 대해 자율적인 그런 문화를 생각?) 살짝 적긴 했지만 하나의 소사이어티가 되는 게 모표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자경단도 생겨서 나쁜 애들 잡아내고 42 폴리스, 경찰같이. 42 재판소 생겨서, 경찰이 잡아오면 재판하고. 42가 학생들끼리 완결된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부의 개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의 동료는 어떤 사람이어야해,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고. 올린공대가 그렇거든요. 졸업생의 자격을 학생들이 정해요. 학생들이 졸업생의 조건을 규정하고 그걸 넘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하게 해요. 학생들이 42사람이라면 어때야해 이런.

(자경단 좋네요) 어뷰징 하는 사람 잡아가고. 하나의 커뮤니티,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42가 다른 기관과 달라지는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차별화되는 점이 그것,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데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그걸 따라서 교육하는 마치 학원처럼 움직이는데, 여기는 약간 동료학습 구성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약간 대안학교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쪽이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 이 안에서 CI CE 컴퍼니 인 컴퍼니라고 스타트업도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과제들, 걸림돌이 있을까요) 초반엔 잘 되다가 코로나 심해지면서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최근 교육생들은 피신을 다 강남에서 하니까 개포에 대한 애향심이 없어요(하하). 좀 있으면 개포에 나오는데, 강남에ㅓㅅ 있던 분들은 개포는 시골이더라고요. 출석을 안한 사람, 아예 한번도 안온 사람이 1/5이 넘을 걸요? 좀있으면 후드 준다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대게 코로나여서 안가요, 지방이어서 안가요 인데 애향심이 없는 그런 증상.. 요즘 온라인 온랑니 언택트 언택트 하지만 이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계도 있어서, 실제로 넷플릭스 헤이스팅스 대표가 재택근무 쓰레기라고 코로나 끝나면 없앨 거라고 이런 얘길 하잖아요. 왜냐면 안만나게 되면 각자 일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건 에콜 42에 치명적이죠. 여긴 동료학습을 권장하는데, 언택트로 재택근무 하면 할것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럼 조직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세렌디피티가 발생하지 않죠. 우연한 만남 속에서 합리적인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그게 동료학습에선 핵심인데 그런게 다 사라지고. 커뮤니티나 소사이어티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가. 아무래도 42교육은 과카몰리 하고 뭐해도 본질은 오프라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22’00”(이전에 했던 일) 크래프톤이라는 게임회사에서 일했고요, 입사했을 때는 배틀그라운드가 터진 직후여서 판교에는 있지만 허름한 사무실이었거든요. 다음해에 여름쯤에 판교 역 바로 앞에 크래프톤 타워라고 새로 멋있게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본 사무공간 중 거기보다 좋은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모니터암으로 돼있고 좌석 앞이 레일로 돼있고 거기에 모니터암을 끼는 형태여서 좌석을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고, 다 전동책상이어서 서서일하고 앉아ㅓㅅ 일하는 살마도 있고. 의자도 다 허먼 빌런이었어요. 제일 좋은 의사 브랜드. 좋은 곳을 두고 이민석 학장님의 속삭임에 빠져서(하하). 저는 예전부터 교육혁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에콜 42나 몬드라곤 팀아카데미나 미네르바 스쿨에 관심이 있었어요, 에콜42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서 지원했죠. 계속 후회없다가 요즘 개발자 연봉 6000됐다고 해서 후회좀 하고 있어요. 동기들은 절반정도 남아있는데. 존버는 승리한다. 크래프톤이 떡상할 줄이야. 왜냐면 당시에 크래프톤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연봉을 적게 줬거든요, 여깄으면 회사가 잘 되는 것과 내 연봉이 높은 건 상관이 없겠구나. 그래서 옮겼는데 그 레벨에 맞춰진 거죠.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교육혁신에 관심이 있곘어요.) 안그러면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요. 제생각엔 여기는 자신의 커리어를 구성하는 데에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굥육혁신 없으면 스탭으로 합료가 이유가 없죠. 남들이 보기엔 메리트 없고 왜가냐는 사람 많았어요.ㄱ ㅡ래도 교육혁신에 대한 꿈도 있고 함꼐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합류한ㄱ ㅓ죠. (보람이 느껴지나요) 세팅하는 과종부터 하기도 하고 짘보기도 하고 했는데 재밌어죠. 하나의 교육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으니까. 캠프도 기획하고. 몇차에 참여하셨어요. (1차여) 아 일차면 좀ㅂ 별로였겠다. 이게 회수를 거듭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갔거든요. 왜냐면 그게 합류하니까 다음달에 해야한대요 업체는 이믹 결정돼썽요. 체크인도 해야하는데 이것도 하라해서, 업체에서 기획안을 받았어요. 겨를이 없으니까 일단 1차를 진행했어요. 뒤에서 계속 봤어요 모든 모듈마다 피드배을 남겼어요. 1일차, 2일차 다 피드백했거든요. 그래서 2회차에 높이고, 3회차에 크게 바꾸고. 2차 ㅂ분들에게 물어보면 많이 바뀌었을 거에요. 뼈대는 비슷하긴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는 것도 4회차에 가셨던 분들은 프로젝트 나눔하는 형태? 1~2차는 퍼포먼스가 하하하하하. (마지막 소고랑 악기 치는 활동은) 캠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캠프의 목적은 42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이 없을 거 ㅅㄲ타다, 그래서 걷어낼 것 겉어내고, 그래서 4회차에서...카트세이버 그 팀도 창캠에서 친해진 사람들이 피신 같이 하면서 프로젝트 한 거거든요. 그래서 1기 1차 2차 분들은 유대감도 있는데, 2기부터는 덜하더라고요. 창의캠프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캠프를 고려하긴 하는 건 같아요. 피신 통과자를 모아서 따로 할 것 같아요. 1박 2일, 2박 3일 캠프는 못할 것 같고 긴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았을까. 확정은 아닙니다.

굿즈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굿즈는 최상으로 해야한다. 원랜 허름한 회사 여눗가면 입느 허름한 후드를… 원단 다 다시 고려해서. 그이후에 웰컴키트도 기획해서. 후드와 티셔츠 웰컴킷까지 제가 했어요. 웰컴킷은 1기 멤버까지 생산하고 추가생산 안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다양한 일을 해서 재밌었어요. 크래프톤에선 조직문화업무만 했는데. 400명 정도 규모의 교육프로그램 진ㄴ행해보는 게 재밌었죠.

(작년에 했던 게 기업들 만나는 일이었을텐데, 42서울의 인식은?) 너무 좋아요. 오프더레코드로 두분만 알고 계세요. (생략). 당장쓰고 싶다는 곳들 있는데 나가서 부딫히는 게 중요하다고. (새로운 기관이라 설명해야 하지 않나?) 콜드 메일보내도 많은 기업이 깠어요. 회사입장에선 저기 뭐야. 아는 곳들은 되게 관심 많고. (뭐라고 설명하세요? 카뎃들은 설명하기 어려운데.) 커리큘럼을 알려달래요. 학생들이 어떤 수준이녜요. 그걸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구언은 인지주의교육으롷 ㅐ서 커리큘럼이 있고 그것만 가르치닌까 설명하기 쉽잖아ㅛㅇ. 근데 여기는 구성주의 교육이라허 딱 디파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42의 특징인 것 같아요, 명확히 규정 못하는 게 맞다고 봐요. 개개인 이 경험헤보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요.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런 게 생기는ㅔ 구성주의 교육이라서 이것만 볼 수 ㄴ없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걸 얘기해주는게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몇회사에서는 아예 42에서 훌륭한 분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린 42에서 떨어진 사람을 연결해줘도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회사들 마다 다양해요.

(42가 개발자의 역량을 잘 길러내나요?) 저는 좋다고 봐요. 일반적인 컴공과가면 대충 ?한사람 절반이고, 컴퓨터에 관심있는 사람 1/3이고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 ⅓ 조차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0%는 개발을 할 수 있느 ㄴ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만큼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있을까? 양적으로나 비율적으로나?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체계적인 교육은 아니니까 부트캠프는 아니니까.ㄱ ㅡㄹ너 부분은 부족할 수 이ㅅ겠지만 컴퓨터 과학을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고 많은 훌륭한 분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42 과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대학도 비슷하잖아요.ㄷ ㅐ학교육만으론 암뭄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더 이루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시도?) (오랜 침묵…) 잘모르겠어요. 바램은 이교육이 처음에 합류할 때 학장님한테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단 지원을 했고 합겨한 다음에, 합격하고 찾아왔어요. 여기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이고 합류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달라. 합격하고도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 여러것들 중 하나가 제가 꿈꿨던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합류를 했는데. 이러한 교육이 소프트웨어 혁신으로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육혁신이 됐으면 좋곘어요. ㅇ교육 전체가 변화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바라고 있기 ㄴ해요. 사실 뭐 저도 교육을 공부했으니까 소프트웨어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육전체가 바뀌는 게 목표,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첫번째 파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퍼스트 임팩트가 돼야 하는데. 에반 게리온.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이런 교육 하나 있으면 성과 잘 내면. 지긍믕 성인 ㅛㄱ육인데 점점 K12로 내려오는 거죠. 점점 시대가 달라지느 ㄴ것 같아요. 얘전에 교사의 머리속과 책에 다 지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 한다고 봐요. 동일하게 교육하는 건 이상하다고 봐요. 그게 소프트웨어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가능한데. 특히 역사 전공을 했으니까 역사 교육도 변화할 수 있는데 변화의 움직임이 덜하긴해요. 얘전에 역사교사가 꿈이었어요. 교직이수도 했었고. 다른 것들도 해보고 싶어서. 할거 없으면 나중에 역사 교사 하려고요. 할거 없으면 시험 공부해야지. 하하. 그것도 문제인게 현재 교원들은 중고등학교 공부 열심히하고 교대 사대 입학해요. 임용고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요. 교사가 돼요. 그러ㅏㅁ ㅕㄴ 그분은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공부와 시험으로 밖에 문제 해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학생다ㅡㄹ에게 교과과정 말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건 의문인 ㅓㄱ ㅅ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른 공직도 점차적으로 변해야 하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교원은 인적이동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봐요. 교사 전담은 사라졌으면 좋게쏙, 나주엥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직업 이동이 자유로운? 교사 5년 했다가 회사 3년 일했다 어디서 5녀 ㄴ일했다가 이런식이 돼야지. 지금 한 군데에서 30년씩 일하잖아요. 그건 사회적으로 안좋은 것이라고 보고. 신라와 조선이 망했던 이유가 다 경직된 사회구조 때문이거든요. 사회구조가 경직될 수록. 마이너르솔. 로마가 망한 이유도 사회가 경직돼서. 구조가 경직되는 순간 저ㅗ는 점차 사회 에너지를 100% 못쓴다고 보기 때문에, 절반만 쓰는 거죠. 아까운 거죠.

교육 관련된ㄱ 건 할얘기 많은데. 공무원 관련 시험은 차라리 코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컴퓨터 과학 지식을 물어보는 걸로. 왜냐면 지금 공무원 시험은 5~10년 공부해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으로 코딩을 한다? 그럼 합격하지 못해도 개발자르 ㄹ할 수 있잖아ㅛ. 시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구현할 숭 ㅣㅆ는 능력이니까. 이사람들이 공무원되면 더 좋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껬죠, 그래서 무조건 현재 공무원 시험 과목들도 공무원이 일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럴거면 프로그램 소프트웨ㅐ어 알고리즘 테스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험만 바꾸면 노량진에서 알아서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개발자 공급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ㅓ 시장이 더 크겠죠. 제로섬시장이 아니잖아요. 시험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지겠다. 어디가면 그런 얘길 하고 있어요. 공무원시험을 소프트웨어로 바꿔야 한다고.

(45’00) 그리고 왜 아직도 21세기에 cbt 시험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ㅛ. 변호사가 누가 손으로 ㅇ리해오 컴퓨터ㅗ로 일하지. 이게 안된다는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경직돼있어요. 이동이 자유로워야 사고가 자유로워지고 상상력이 높아지는데 다 30년씩 같은 곳에서 일하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에 나무위키의 역할을 왜 우리가 해야하는지

(10년뒤의 스타크님의 모습)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어요. 꿈이 명사는 아니고 동사였는데 그 둘중의 일을 하나를 하지 ㄴ않을까. 교집ㅎ바일 수 있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두 라인 어딘가에 걸쳐져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장래희망도 명사로 묻지말고 동사로 물어야 한다고 봐요. 어떤 일을 하는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명사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아쉽죠. 일하는 거란 조직문화. (42에선 안하세요?) 42에선 안해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션 교육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카뎃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카뎃분들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훨씬 모르는데, 그런 전제를 잊고 얘기를 하자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나를 과소평가하지말고 지원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지원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이지만, 지원하면 가능성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다들 나는 준비 안됐어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굥. 그것보다는 서류평가하는 사람과 면접보는 사람에게 그 고민을 넘겨라. 왜 힘들게 고민하고 있냐. 다들 실력이 충분한데도 계속 과소표ㅕㅇ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42서울 학생들 훌륭하고 외부에서도 좋게보기 때문에. 너뭄 다들 소심해져있어요. 지원하고 떨어지면 아 거기랑 안맞나보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 심하게 상처받기도 하고 준비 안됐으니 1년 더 공부하기도 하고.

(신청한 이유) 카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기 때문에. 필요하면 써달라고 하는 거죠.